

사설

형상이 아니라 자성이다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한다. 과연 이 꽃을 본 사람이 있을까. 꽃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꽃을 검증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불상이나 사리에서 방광(放光)을 하고 땅을 흔들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일체경음의〉와 〈해림음의〉라는 책에도 우담바라는 여래, 즉 부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상서롭고 신령스러운 꽃으로 천상의 꽃이며, 사바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3천 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것을 보았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법화경〉 방편품에 "이렇게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여래들이 시절이 되어야 말씀하시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또 계승에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건만, 천상인간에 매우 희우하여 때가 되어야 한번 피나니, 이 법은 듣고 기뻐서 천한 한미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삼세(三世) 부

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이 사람 매우 희우하기가 우담바라 꽃보다 더 하리라" 하였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의 나타남과 설법 들은 귀중함을 우담바라에 비유한 것이다.

〈금강경〉에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된 도(道)를 행하는 것이므로 결코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불교는 부처님의 형상이나 설법, 그 자체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불상이 상징하는 의미와 설법이 가르치는 내용은 마음으로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다.

설사 사바세계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꽃이 실제로 피어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봐야 한다. 상징의 의미는 소중히 실천할지언정 형상에 현혹되어 만사형통을 바라다면 부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우담바라의 의미와는 하늘과 땅 차이 이상으로 멀고 하여 때가 되어야 한번 피나니, 이 법은 듣고 기뻐서 천한 한미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삼세(三世) 부

표점표기는 불교학 발전 척도

사건은 해당 문명의 경학(經學)과 국학의 모든 성과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경학이 보편성과 절대성을 표방한다면 국학은 지역성과 상대성을 표방한다. 한국의 경학은 한국의 국학이었다. 그런데 이 경학과 국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표점'인 것이다.

표점(標點)은 문장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약속해 놓은 '부호' 또는 '점'이다. 또 한 문장 속의 의미를 가늠하는 최소의 정보단위이다. 때문에 표점은 해당 학문의 수준을 반영한다. 표점은 문장의 해부도와 같다. 한 학자가 해당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양학문의 경우 한학의 대가라 하더라도 〈고려대장경〉과 같은 전적(典籍)을 정면으로 통과하여 해독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미 내지 구라과 문화권의 전적에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통역 및 중역을 표시하는 콜론(:), 단입 구나 절을 표시하는 콤마(,), 병렬·대비·대조로 나열되는 구나 절을 표시하는 세미콜론(;), 의문을 나타내는 퀘스천마크(?) 등의 여러 표점부호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모든 한문전적에 '오우리가나' 내지 '구

두점'을 찍었고, 중국이 문화혁명 이래 간행한 〈이십오사〉 등과 같은 고문헌과 그 이후 간행하는 현대전적을 모두 '간체자' 내지 '표점'을 표시한 것은 경학과 국학의 기반이 표점이었음을 일찍이 통찰한 결과였다.

따라서 최근 입력되고 있는 전산본 〈고려대장경〉이나 〈한국불교전서〉에 표점을 찍지 않는다면 그 장대한 작업의 의미는 크게 반감될 것이다. 표점은 고문헌의 표준번역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존번역을 점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화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독특한 장치인 것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표점은 필수적인 것이다.

〈고려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불교학자와 한문학자들이 모여 표점표기위원회를 구성 표점표기의 원칙을 만들어 표점 작업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체는 아무래도 지성의 산실인 대학(동국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출판과 전산 부문 등에서 표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불교학계의 평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표점의 무시로 인해 불교학계의 후진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한다.

교구본사 신도조직 취약

조계종 분석 외지인 시주·관람료에 의존

조계종 사찰 중 신도조직이 가장 취약한 곳은 교구본사이며, 이들 사찰은 외지인도의 시주와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표적 교구본사인 합천 해인사의 경우 해당지역이나 사찰촌의 신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구본사도 이 같은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산 육련암 등 포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사찰은 신도구성에 있어서 지역민의 비중이 높고 사찰재정이 무명함은 물론 사찰이 사부대중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사찰이 지역행사에 결합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민과 신도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신도들의 삶의 질과 신행적 결속을 높이는 공동체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분석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 포교연구실이 지역사회의 사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마련을 위해 △지역사찰 특징(종교, 경제) △지역사찰의 포교현황과 전망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16개 지역 교구본·말사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포교연구실은 1차 보고서에서 지역사찰의 역할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중헌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중헌을 이를 중헌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했으므로 중헌 개정 논의는 3월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본회의에서 사면·복권에 대한 난상토론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법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중헌특위에서 심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면복권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원성) 사무처장 도관스님은 "18일 현재 2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5명여명이 사면 실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운을 통한 주지스님의 위와 형성, 신도들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인력배치, 사찰포교제정의 지역회합, 신도조직화 및 교육, 지역사찰과 연계구축 등이 제시됐다.

포교연구실 김관태 과장은 "지역사찰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야 하며 조직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편제해야 한다. 발빠르게 문화코드를 읽지 못해 지역의 청소년, 청년불교가 실종되고 있다"며 "포교원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지역포교사업을 반영하여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12월 '지역사찰의 역할과 모델' 자료를 발간하여 포교자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태고종 행사 130명 장기기증 태고종 제24기 합동 특도수계신림에 참가한 행사 130명(남행자 108명 여행자 22명)이 19일 선암사에서 단체 헌혈과 사후 장기기증서약에 동참, 매머드 이 사회에 보살정신을 실천해 보였다.

“조계사 신협특위 구성”

중회 재정조사위 촉구 부와 통장거래 내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재와 통장금액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사장의 관리부재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 구성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책임 소재 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재정사고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등 4가지 사항을 본회의와 총무원장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적스님은 "올해 2~3월 사이에 장부상 기록없이 총무원 명의의 통장에서 상당히 큰 액수가 출·입금된 사실을 2건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법전스님 ◇청화스님 ◇이두스님 ◇원명스님

1면 '원로'에서 이어짐 원로의장으로 선출된 법전스님은 1926년 경북 금릉 출생으로, 35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53년 봉암사 수선결사 이후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해는 선승이다. 48년 백암사에서 만공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백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80년대 중앙종회의장(81년)과 총무원장(82년) 호계원장(84년)을 맡아 종단 운영에 전력하기도 했다. 이후 86~93년 해인사 주지에 이어 96년부터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돼 후학을 이끌고 있다. 97년 일경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4일 제 44회 운영회의를 열고 현 총장권한대행인 정인스님을 총장으로 추대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사면 논의 '원점'

특위 중헌 수정 안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3월 열린 146회 중앙총회에 62년 이후 별반자의 사면·복권을 실시하기 위한 중헌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중회는 이를 중헌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했으므로 중헌 개정 논의는 3월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본회의에서 사면·복권에 대한 난상토론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법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중헌특위에서 심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면복권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원성) 사무처장 도관스님은 "18일 현재 2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5명여명이 사면 실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육자진언비 마니륜장엄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16일 서울 총인원 육자진언비 앞 특설 법회장에서 '육자진언비 마니륜 장엄불사' 회합법회를 봉행하고 남북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성초 총리원장은 이날 법회에 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마니륜 장엄불사는 남북평화통일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총인원이 밀교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있는 불사"라고 말했다.

"육자진언비" 육자진언비 후방 앞쪽 벽면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위시 금강정유가 삼십칠존 불보살의 명호를, 좌우에는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비천상을, 뒤쪽 벽면에는 은혜를 새겨 장식했으며 진언비 돌레에는 54개의 마니륜을 설치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지역주민과 늘 가까이...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민속한방의학으로 난치병을 다스리고 예방한다

전주 모악산 기슭에서 각종 암, 관절염, 디스크, 통풍, 신경통, 산후통, 루푸스 환자들을 치유하며 얻은 생생한 기록!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유행약물리를 이용한 악물요법·항암약차 요법·썩음요법·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죽염요법·마늘요법·난반요법·녹즙요법·술원 땀내기 요법·썩탕목욕 요법·호도요법·수땀과 건강·발 주무르기·항문 조이기·기공·단전호흡

관절염·신경통·산후통·허리디스크·건비통·통풍·루푸스 치료법

한방약물요법·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약차요법·썩음요법·죽염요법·마늘요법·녹즙요법·술원 땀내기 요법·썩탕목욕 요법·적절한 운동·발 주무르기·항문 조이기·단전호흡

1권: 정력회 환기 편 2권: 정력의 원기 편
글·그림 이경민 | 감수 허태현(한의학 박사)
각권 8,500원 | 222면

내 몸에 맞는 보약, 직접 진단하고지어볼 수 없을까요? 동의보감 처방의 바다에서 건강해법을 뉘으세요.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회 환기 편 2권: 정력의 원기 편
글·그림 이경민 | 감수 허태현(한의학 박사)
각권 8,500원 | 222면

최신수·김민택 저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9,000원

최신수·김민택 저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8,000원

호기심 박사 황수권의 건강 따라하기 황수권 저

배와 장수의 묘약 홍화씨 건강법 이인우·최진규 저, 김현호 감수

초두루미 구관모의 옛날 식초 장수법 구관모 저

鍼치료와 생식요법으로 병을 고친다 장형희 저

술은 운명을 좌우한다 마루노 남보부 저, 다미에이이치로 편, 최진호 편

不老長生의 지혜 최진호 저

디지털 시대를 사는 허준의 후예들 김성수 저

황수권 박사와 함께 따라해 보는 매일매일의 건강치침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노화방지법을 찾아볼 수 있다.

부러진 뼈, 골다공증을 고치는 데 신성한 효력이 있는 홍화씨. 뼈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예방법 또한 나와 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치유하는 식초요법. 식초 한 병이 산삼 만 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번와 수명, 미래의 운명까지도 음식으로 결정된다. 무절제한 현대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

세계 장수촌과 선인들에게서 캐낸 건강장수의 비밀, 노화와 장수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성과를 모았다.

한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의대생들, 허준 같은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들의 제법과 당부의 이야기를 담았다.